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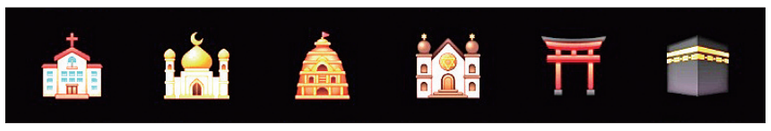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27일)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소외 이웃과 김장 김치 나눠요"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 이하 대불청 전북지구)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대불청 전북지구는 12월 17일 김장김치 1000kg을 담가 전주 보리수마을 노인일자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불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이에 불교청년회가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성 갤럭시 이모지엔 '불교 사찰'이 없다

갤럭시 스마트폰 그림문자 '이모지'
종교 장소 이모지에 사찰만 누락
기독교, 이슬람, 日신도 등만 존재
6개 이모지 있는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 이모지 1개…현격하게 적어
불교계 "종단적 개선 움직임 필요"
삼성 "내부 논의 중… 입장은 無"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 등록된 이모지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 이모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직접 캡쳐한 갤럭시 이모지들 중 '종교적 장소' 이모지 6종.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 등록된 이모지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 이모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물론 일본 토속종교 신도(神道)의 성소(聖所) 상징하는 이모지까지 제공되고 있어 불교계에서는 "사실상 '불교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이모지(Emoji)를 모바일 기기에 탑재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용자 피드백과 요구를 반영해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 UX(사용자경험) 팀에서 대대적인 이모지 디자인 개선을 추진했다. 표정, 장소, 동물, 깃발 등 8개 카테고리에 2200개의 이모지를 제작했고,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의 관련 홍보 게시물에 따르면 이 이모지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모지"를 전제로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모지 디자인 담당자들은 "삼성전자만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인종, 국적,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모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삼성전자의 이모지 디자인 방향성은 직업의 성평등과 연령층의 다양화로 구현됐지만, 정작 종교적인 측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소 카테고리에 속하는 '종교적 장소' 이모지에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와 대표 성지인 '카바 신전',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 '힌두교 사원', 일본 토속종교인 신도의 건축물인 '토리이(鳥居)' 등 6곳만 검색될 뿐, 불교 '사찰' 이모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삼성전자는 국내 브랜드평판지수 1위 기업이자 43개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대표기업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 5억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국내 종교 순위 1, 2위를 다투는 불교의 사찰 이모지를 누락한 것은 고의 여부를 떠나 '특정 종교 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교'를 나타내는 이모지 역시 타 종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6개 이모지가 도출되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를 상징하는 이모지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법륜(法輪)'이 유일하다. 기독교 관련 이모지는 라틴·정교회 십자가, 교회 2곳, 천사, 묵주로 가장 많았고 모스크, 카바 신전, 월성기(이슬람교 상징, 초승달과 별), 터번을 쓴 인물 이모지가 검색되는 이슬람교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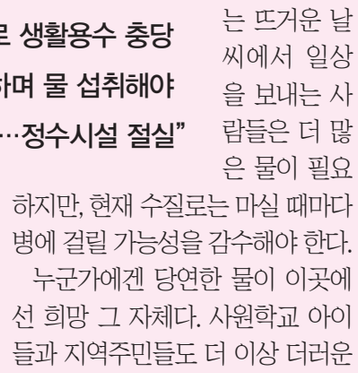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은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쓴다. 그런데 불교 이모지만 배제됐다는 건 다종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 규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어떤 종교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 특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향문 스님은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불교 사찰 이모지를 누락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모지에서 불교 관련 이모지만 제외된다면 향후 한국불교 발전과 포교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개선을 위한 종단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 전달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544명의 미얀마 아이가 안전한 물을 기다립니다"



모곡 사원학교 교실 내부.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흘라잉따야 타운십. 그곳에 자리한 모곡 사원학교(Mogok Monastery School)에는 544명의 학생이 배움과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33명은 스님으로서 수행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스님 가운데 10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배움터에 스님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걱정거리가 남아있다.

바로 물 문제다. 미얀마 사원의 특성상 학교는 불자들의 후원과 탁발로 스님들의 식사를 해결한다. 그러나 물 문제는 후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양곤 위치한 모곡 사원학교
상수도 없어 우물로 생활용수 충당
수인성 질병 감내하며 물 섭취해야
"깨끗한 물은 희망…정수시설 절실"

사원학교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우물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한 물은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다가 침전물을 가라앉혀 사용하는데, 이는 위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과 스님들이 매일 이 물을 마시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우물물은 시설 주변 위생 환경이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관리로 오염되기 쉽다. 침전물을 제거한다고 해도 물속 세균과 유해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수인성 질병의 위험도 높다. 실제 학생들은 설사병이나 장염 등 온갖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오염된 물을 섭취하면 신장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이 지역 지하수는 석회수가 대부분인데, 물속에 포함된 과도한 미네랄 성분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석회수는 물의 경도를 높여 조리와 세척에 불편하고, 식수로 사용할 경우 신장결석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물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원학교 근처에는 3000가구, 약 1만20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절실하다. 연평균 기온 2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질로는 마실 때마다 병에 걸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물이 이곳에선 희망 그 자체다. 사원학교 아이들과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더러운 물로 고통받지 않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아이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모곡 사원학교 지역조사를 담당한 김두환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장은 "깨끗한 물은 생명이자 희망"이라며 "사원학교에 정수시설이 갖춰져 아이들과 스님들이 건강을 지키고, 수행과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문의 : 로터스월드(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